

# 早月探険

▲ 1은 을 남대했던 주인공  
도자진 「금강도 카드」  
韓國을 빛낸 論客들



人間探険

盧泰愚

1986 3

(한국면..前 어둔 경비서)

△ 6. 25는 내 이색이 최초의 신수다

# 「6·25는 내 일생 최초의 실수다」

黃圭冕

이승만 전 대통령

잊혀져 가는 이름 李承晚

제5공화국이 들어선 오늘, 제1공화국의 李承晚 전 대통령은 이미 역사 속의 인물로 잊혀져 가고 있다. 역사 속의 한 인물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李承사가 자신 지 21년, 제1공화국이 박을 내린 지 26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이르다는 생각이다.

【말후】 4·19혁명 이후 李承사에 대한 저에게서 막가는 「李承자」로 규정되어

이미, 지난해 하와이에서 있은 李承사의 등장 계막식에도 참석했다. 기구한 인연이라기보다 李承사와 같은 분을 가까이에서 보필했다는 사실을 내 인생의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천국」하고 접두한 노인

후회의 계에서 李承사를 「천국난관한 노인」이라고 할 정도로 李承사는 「순수한 지도자」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사생활은 점소했다.

한국하여 돈암장에 앉을 때나 대통령 사는 비서들에게 등장 「물건을 아끼쓰 라고 강부하곤 했다. 李承사 자신도

집무실에 쓰는 예모지는 정무대로 대답 된 편지봉투를 모아두었다가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편지를 잘라 버렸다. 후대 통령은 하오나 저녁에는 봄만 있으면 서에 헌장을 했는데 새 종이가 아니 신문지를 사용했다.

4·19혁명 이후 李承사가 권좌에서 물러나자 축구 세력을 투옥되었지만, 후박사의 송애를 받기 위해 아첨했던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은 하루아침에 중역 물리고 보수를 낸 경무대 밖에서 보았다. 중원 물리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자구책으로 李承사를 대도하기까지 했다. 그것 친이 마르도록 李承사를 친양하고, 만그들이 갈도록 미화했단 정치인들이나 운동가들은 李承사를 독재자로 미판하고 나섰다. 지금도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많아 그들의 이름을 밟히자는 양쳤다. 그해 6월 5·16 혁명 이후 4·19를 다시 비판했던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李承사를 독재자라고 하지만 내가 지켜본 후대통령은 권모술수를 머물 는 놀라운 정치지도자였다. 해방 직

진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의 세대는 李承사의 40여년간에 걸친 통일부정 보다 12년 동안의 「장기 전투」에 비판의 촛점이 맞주어져 있다.

나는 李承사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평가를 내릴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다. 다만 韓明 이동해인 1946년부터 1955년까지의 민족적 계통과 수난의 시기에 최고통치자 앞에서 10년간 보필했다는 경력 밖에 없다. 말하자면 정부수립 이전 「돈암장 시절」에는 李承사의 개인 비서였고, 「정무대시절」에는 공식 수행 비서로서 가까이에서 모셨던 한 사람일 뿐이다.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나는 韓明을 통가로서 李承사를 추앙했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존경했다.

후박사에 대한 오늘의 평가를 수정할 만한 힘도 나에게는 없다. 나는 정치를 모른다. 그리고 李承사 같은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만한 암목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李承사, 즉 제1공화국의 李承晚대 「장기 전투」에 평가하는 데 단한 줄이라도 차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에서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다. 나는 하루 李承사의 길을 머나마 있었지만 李承사가 서거했을 때 하와이에서 그 분을 모시고 국립묘지까지 왔

서 비서들에게 「누구에게서 알았는가」에 빠져온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李承사가 처음 기거했던 돈암장은 평양도 사람이었던 韓明설가 제공한 집이었다. 그러나 미군정하에서 입법의 원외장에 숨죽여박사가 앓게 되자 그 사람의 후박사를 멀리해 돈암장에서 마포장으로 옮겨 3개월동 살았다. 마포장은 지금의 서울대교 오른쪽 언덕에 있었는데 수도들도 나오지 않아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韩明설씨가 주선하고 朴興植씨 등 20여 명이 6월원을 모금하여 이화장을 대여해 이사했다.

이화장 시절이나 경무대 생활에서 李承사의 하루 일과는 거의 일정했다. 스케줄은 비서실에서 쌓지만 프란체스카 여사가 최종 확정하여 李承사에게 알려 주었다. 아침 6시 전후 일어나 산책을 한 후 아침식사는 8시까지 끝내고, 9시부터 집무를 시작했다. 상아에는 서류 정리와 지시, 주내의 순교와 청탁으로 채워졌으며 점심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 끝냈다. 오후에는 오전의 일과와 거의 같았으며 오후 5시께 집무를 끝냈다. 그리고는 부인의 암과를 끌이며 경무대 생활을 시작했다. 산책을 하다가

도 나무에 꽁풀이 있었던 손수 가위로 잘라냈으며 유통망 경찰서 나무도막을 도끼질하기도 했다. 저녁 식사는 6시 17시에 끝냈다. 취침 시간은 21시.

### 밥 화물기에 산다를 두어가지

후박사의 식사는 아침·점심·저녁 모두 달랐다. 아침은 토스트와 우유로 간단히 했으며, 점심은 밥 한공기에 반찬은 주로 삼나물 두어가지 정도였다. 박사가 즐긴 삼나물은 도라지와 고사리. 그리고 생선보다 불고기를 좋아했다. 후박사는 외국 귀빈이 와도 만찬을 베푸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메뉴도 한식으로 했다. 후박사가 식사를 들기 전에 복 부인이 먼저 시식을 했으며, 프란체스카 여사가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것을 지시하는 것 이 일과처럼 되어 있었다. 경무대 주방장은 楊學燮였는데 楊燮은 이화장에서부터 후박사가 하와이로 떠날 때까지 주방일을 보았다.

비서들이 외국 손님에게는 양식을 대접하는 것이 좋겠다고 진의하면 후박사



군부대를 방문, 취사장에서 장병들의 밥을 직접 점검해 보는 李承晚(1958.12.)

박사가 한발 옥중에서 지운 시들을 대부분 수록했다.

### 경호에 별 신경 아파

대통령으로서 李박사는 자신의 신변에 대한 경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처음에는 경호원이 3명 정도 수행했을 뿐이다. 후박사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경무대 경찰서가 생겨 경호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의술을 할 때에도 자신의 경호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내가 경무대를 떠났던 55년 이전까지만 해도 경호 체계가 허술했다. 후박사는 자신은 지나친 경호를 싫어했지만 부인은 상당히 신경을 쓴듯하였다. 후박사는 몇 차례 저격의 위기를 당하기도 하였으나 별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6·25 당시 수복 직후 남대문시장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연설한 날이 있는데 그 때 가까이 서 있던 부인의 치마 밑에서 수류탄이 굴러落ち아져 주워가온 통 소리에도 후박사는 입설을 계속했다. 楊學燮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차위의 후박사를 내려오라고 목록을 해서 아연

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고유 음식을 먹어야 애인상이 깊게 남을 것이 아니냐고 했다. 외국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 가운데는 산나물과 함께 둥나물, 숙주나물까지 있었다. 그러나 김치는 냄새 때문에 오르지 않았으며 후박사 자신도 김치는 좋아하지 않았다. 韓長高에도 별다른 음식이 없었고, 매일 밥은 언제나 혼식이었다.

후박사는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아침에 화장실에 갈 때만은 담배에 불을 끌어 가져갔다. 술은 잡이 잔 오지 않아 밤과 피로와 일이 있으면 그냥 한잔씩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비서들이 어쩌다 앙금리를 피동을 친다.

후박사는 초기에 한복을 주로 입었으나 세탁과 입는 것이 불편하다 하여 양복을 주로 입었다. 짐무가 끌려난 후 한복을 입을 때는 대고리를 끌지 않고 그냥 허겁지게 입고 사용하기를 즐겼다. 후박사는 동물을 무척 좋아했는데 전우들이 있는 밭바리를 귀여워했다.

후박사가 칠권하기 전부터 키웠던

「해파」, 「스마티」라는 이름의 말마리는

후박사가 하와이로 떠난 후 뒤늦게 보내려다 정치 문제화되기도 했다. 동물을 좋아했던 후박사는 무슨 동물이든지 우리에게 가두어 키우는 것을 아주 싫어 했다. 한번은 경무대에 예쁜 새 한隻을 새장에 넣어 선물로 보냈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새장을 옛날 날리 보낸 적도 있다. 남시를 좋아했지만 어제나 밥은 언제나 혼식이었다.

후박사의 영어 실력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겠지만 한시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분의 짐무실에는 항상 베푸와 붓이 놓여 있었으며 비서들은 항상 떡을 잘 아두었다.

60년 후박사가 하와이 망명생활을 하던 중에도 나는 미국인 이름으로 국내 자체에 대한 소식을 찾지로 보고했다. 담장은 부인이 직접 타이포해서 보내왔다. 어느 날 후박사 자신이 지은 한시를 글씨 책으로 발행했으면 한다는 연락이 왔다. 그분의 마지막 부탁인 것 같아 후譜集, 金相采씨와 의논하여 민주당 정부 몰래 4백부 정도 발간했다. 시집 이름은 「세여집(昔夜集)」으로 후박사가 직접 지은 제목이다. 「세여집」에는 李

실을 끌었다. 차속에서 허박사는 대인  
하게 「전쟁으로 하니 군이 주신 것」이라며  
「전쟁으로 많은 죽민들이 죽었는데 내  
가 목숨을 아껴서야 되느라」고 말했다.  
자유당 말기 鄭水闇가 정무대 경찰서  
장으로 취임한 후부터 경호가 강화되었  
다. 鄭水闇의 선임자인 金長興씨나 金  
國振씨는 전통한 성종이었으나 鄭은 활  
약하고 교활한 성격이었다. 그는 처음  
에는 나와 같이 허박사를 수용한 경호  
담당 경사였다. 허박사의 충돌을 받긴  
해도 그가 경호체 일자가 되었을 때에는  
후박사 집무실 카페트 밑에 「전화선」을  
깔아두고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  
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의 측근이로부터  
털털 들었다.

마구이 없었지만 당시 전화대 비서들은 한정같이 그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보사 뒤에 멀뚱이(정과 멀뚱이)와 세월다는 사실이 주막사에게 전해졌다. 주막사는 당장 部을 불러 「국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차태을 멀뚱이로 지어서야 되느

제 6장

이 않았다. 가끔 남대문시장이나 동화  
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에 들리 물가  
를 알아보기도 했다.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만 들어도 판매장판위 전무дей로 물  
러 호봉을 쳤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는 정답리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민정부  
시찰원 11살 때 미리 상표와 가격을 조

작' 진영에 두는 「모래밭」 관료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 대중화된 이 같은 말이 민 시세보다 한층 더 확장되 대답하도록 험박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진지어 외제상품에 국산상표를 붙여 국산품이라고 속였다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밖하지 않겠지만 당시 鄭永簡 와 가까웠던 어떤 기업체는 韓의 주선

으로 주제를 정하고 공연장을  
외제 천장을 보여주며 자신의 공연장 제작을  
이끌고 속았다. 그때 후박사는 「이정재가  
질 좋은 국산품을 개발했다니 기쁘다」  
고 하면서 혀를 빼고 있던 鄭水間에게 「이  
공연장에 어려운 절이 있는지 알아보고  
도와주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鄭은 다  
음 날 운동에서 유자를 만도록 해 주기

나고 호통쳤다. 그러나 郭은 눈물까지 흘리며 사실이 아그라고 거짓말을 했다. 李박사는 郭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다. 당시 李박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면 郭은 경무대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그 일이 있으니 郭은 경무대 비서 를 중에서 보고한 것으로 짐작하고 부하들에게 조사를 시킨 일도 있었다. 초기에 李박사는 장관이나 경무대 비

서실 칙원들이 부정을 했거나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차없이 해임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내렸다. 그러한 후박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자유당 실력자들이나 경무대 축군들은 직언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후박사와의 접근을 차단했던 것이다. 그 때부터 「기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내가 曹泰鎭에 죽이라고 했단고?」

도 했다. 물론 끝이 기업체로 부터 거액의 코미션을 받아 생긴 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었다.

국산품 개발과 대중에 대한 철학적 대변했다. 비서들에게도 언제나 국산품을 출시해서 대중화도록 지시를 내렸다. 양방울을 먹우는 사람이 있을 때면 이를 가차없이 밟고를 시켰다.

가장 학제적 시각 확장 전략

두웠다. 비서실에서 국내신문을 데일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두었지만 알고  
계시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초기에는 광보비서였던 金熙燮씨가  
중요한 기사에 불안감을 차 내용을 대  
충 보고했으나 빙단통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 했다. 그렇다고 국내신문의 보  
도국장임 두고 자신의 전횡을 표방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어쩌다 자신에 관해  
비판적인 기사를 보게 되면 「신문이 야  
당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억지로 「적  
도 있었지만 어떤 지시를 내린 일은 보  
지 못했다. 디우기 프란체스카 여사는  
주박사가 국내신문을 보고 화를 내는

열이 있고부터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보고하지 말도록 한 일도 있었다.

후박사가 하야하여 이화장으로 돌아와 있을 때에도 후박사는 밖의 실정을 잘 모르고 있는 듯했다. 내가 국내신문을 읽어주었을 때 후박사는 「내 의견을 신문에 발표하면 어쨌겠느냐」고 말할 정도였다. 한번은 竹山 藤春福씨의 사형 지시를 후박사가 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보고했더니 「내가 조봉암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하면서 허탈하게 받아들였다.

조률 받는 나락 살았는데 끝없이 그림  
아지』라고 저작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제스처이지만 물라도 후박사는 친절이

여기 죽박사를 머시면서 본 일 충동  
그뿐이 죽박사이로서 '제단에 내고 기우  
가장 주제한 절에' 사제선의 죽박사로  
단。 이제 죽박사 죽박사 P. Life is dear  
to them also(죽박사에) 나세 죽박사  
죽박사 죽박사)죽박사 죽박사。

6. 25 전쟁 당시 [군집의 의]에서 사령  
선고를 받은 사령수가 행무소에 많았습니다. 이 사령 확인 결과는 [군집의 의]에서 소관 사항이었는데 절차를 올바르게 막아다  
죄상을 끄치꼬치 따지곤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후박사는 절재를 하기 전에 「내가 「사인」만 하면 그걸 바로 치르는데

나는 그만두고 놀고 있었던 사실을 되돌려 생각해보니 그때는 그만두고 놀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만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만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만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후박사의 학이전제를 받아 서대문교 소에서 사해이 진행되었어도 후박사는 절로 자신이 날리를 해기했다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듯했다.

전쟁이 한창이던 부산 폐난시 청량계, 경계 고위 간부의 아들들이 상당수 방에 올 기회하기 위해 외국으로 유학갔다. 이 사실은 안동대 동문인 어느 당시에서 영진 국무회에서 「이씨, 국무위원이나 정치인들 자체 운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외국으로 피한 사람이 있다는 데 사실인가」라고 대그쳐 물었다. 이 때 송리가 「하니, 조사는 못해 봤지만 장·차관 중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고 아울렛 대답했다. 후박사는 「그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라며 더 이상 수긍하지 않아 문제가 일어날 되었지만 군무위원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자체가 운데도 병역기피를 외적으로 한 도과자가 있었다. 대장장이 충리의 대답을 듣고, 송리는 대동강을 수었던 것이다.

『평생 차운 페인 칠로(한 것 같아)』

내기 10년동안 후박사를 보필했던



화이트 양명한 후박성이 고모들과 만나고 있다.

여울 빛나갔다. 75세의 오미를 엎고 화자에 앉아 지구를 감고 있었다. 초여름의 밤기온은 하기 끝까지 놀랐다.

잠시 눈을 놓았던 후박사는 대전을 지날 무렵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여보게 마스터 황, 나는 평생 차운으로 학문을 전공했던 것 같아.」 그 분 전에서 어려 해를 보였지만 때처럼 출출한 음식을 끊어본 적이 없었다. 기차가 대구정에 도착하자 후박사는 「여기가 어디나고 나에게 끌어다. 대구라고 대답하자 「이봐, 기관차 를 몰리라고 하게」하며 호통을쳤다. 미처 믿지 못하지 하지 않았다. 대동강은 전세가 1000을 나오지 않았다. 대구라고 대답하자 「이봐, 기관차는 보고를 받은 대동강은 「자네는 둘로 하지 말고 후장을 잘 지키게. 나 다시 서울로 가야겠네」라며 기관차를 다시 북으로 몰리도록 지시했다. 나는 대동강의 대도가 하도 위험해 감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었다.

간송 가짐이 안타깝고 괴로웠던 일은 6·25전쟁으로 대동강을 모시고 폐난에 나섰던 일이었다.

6월 2일 그날 나는 집에서 쉬고 있던데 韓在鳳씨로부터 날히 경무대로 이오라는 인사를 받고 달려갔다. 후박사의 지시로 SCAP(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전화를 걸었다. 후박사는 「당시 맨아래 사령관에게 주임하게 한 일을 했다. 「오늘 이 사태가 빚이진 것은 결코 무기를 보내주시오」

후박사는 단단하게 자신의 책임이 미친 정부에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북괴의 아크기가 나타나 때마다 대동강 부두는 방공호로 피신했어야만 했다. 甲性 10·중망장관은 크게 걱정한 것이 없다. 11·한국 보고만 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 철의 세력이 의외로 대장하고 보고했다.

경찰 새벽 2시가 넘어서 국방성 관을

서대의 신관성을 애하였다. 이어 趙炳

주기(鄭基)가 경무대로 달려와 비서들

에게 폐한을 해야겠다고 시를렸다. 그 려면서도 대동강을 수행한 사람을 나서지 않았다. 브란체스카 여사는 경호원에 수송미사를 제비를 뽑아 결정하라고 독촉했다. 나는 「대동강을 모시고

갈 수송원을 세비로 뽑아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자정에 나섰다. 일단 군수물 전장하고 경무대에 있는 자수원 모아보니 5만원밖에 없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마지막 60만위

도 못되는 액수였다. 경호원은 金長興 충경과 경호 수장 4명이었다.

서울역에 준비된 열차는 기관차 1량에 3동객차 2량. 대동강의 특별 기동차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당시 나는 고참미서로 경무대 본관에 일반적인 비서업무를 아니라 경무대 살필살이로 맡아졌다. 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이 작정되었지만 내가 대동강을 모셔야 한 다른 의무감을 가졌다. 정장이 더러 차지에 숨어있고 행적이 넓어 날뛰고 있는 소문이 나돌아 대동강을 수행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6월 27일 새벽 4시쯤 대동강 내외로

과 수행원 6명이 래운 열차가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編纂

■ 高宗元年(1864)早E  
隆熙4年(1910)까지  
最近世史 研究史料

黃 应喜 / 金澤榮 著修  
10,000 卷

■ 高宗 3年 (1866) 부터  
解放까지의 愛國志士  
240名의 記錄

騎驢隨筆

卷之三

■ 旧韓末의 外交關係  
粵引起韓日·韓美關係  
重要研究資料!

修信使記録

金椅秀 / 金弘集 /  
朴冰峯 著 直 7,000 원

■ 全琫準供草外 先鋒將  
들의 阵中日記 및 日軍  
大隊長들의 實地記錄 등  
26種의 書面資料!

# 東學亂記錄

上下 全珠集 / 李圭泰  
/ 李平編著

探求堂

서울·강남구 123호 101-  
☎ 732-2004 730-9955  
松葉苑 / 桜葉苑 240號

시간쯤 말라 이리에 도착했다. 데리 5시였다. 훈민서도 시장끼를 느꼈을 인지 구내 대점에서 사온 과자를 맛있게 즐겼다.

대통령 일정이 이리 익숙한에서 정오 까지 기다리니 3승객차를 한칸 단 기 차가 왔다. 두 시간이 지나 목포에 도착한 대통령 이모친은 목포 행정부 사령부에서 '습관' 한정한 그림자를 학장을 태고 다른 활성의 호위를 받으며 7월 2일 11시 부산부두에 도착했다.

대통령이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대저서에 있었던 관료들도 대통령의 행장을 모리고 있었다. 일대 소동이 일어나자 온 군중이 떴다.

는 당시 수도인 대전과 부산이 너무 멀다.  
다른 농민이 켜 절국 대구로 다시 올라  
왔다.  
그리고 대전이 위기에 처해 있을 무  
렵 주미사는 임시수도를 부산으로 옮기  
도록 치시하고 「피난 정부」 생활이 시작  
되었다.

부박사는 부임의 첫날에 아침에 국수를 먹고 앉고 3일동안 한정복 전신에 시체하고 장묘복을 입고 하숙하고 미간(眉間)에 죽음을 알리려 나섰다.

서울이 수복된 후 부박사는 국군 수비들을 정무대로 불러 아무일 없이 청호지에 「北進統一」(北漸統一)이라고 세 보였다. 38선을 끌어와서 북진(北進)을 막아야 했던 것이다.

국군이 평양에 입성한 지 10일 만에 부박사는 申性模(국방장관)과 丁一權(총성장)을 모종장을 대행하고 수수기 편이며 평양에 올 침문하고 철민을 내렸다. 평양에 도착한 부박사는 원호하는 시민들 속이 많았지만 들어가 포옹하는 바람에 경호원들이

도착하고 東山 열차 안으로 오에게 서울이 걸지다. 후박사는 라며 박유의 고로 들어섰다. 후박사는 참 온 듯 3만원 대전역장실에 있던 中性換 이미 적의 수증 말라는 전화가 행은 수원까지라도 가야겠다고 했다. 그때 미 대사관 참사관이었던 드럼라이트가 들어와 인사를 하면서 무초 대사를 대리해 유예이 대(對)북의 군사제재를 견의했다는 소식과 보루먼 미 대통령이 해·공군 총장 및 대한(韓) 간급 무기원조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이 소식은 대통령은 처음으로 가벼운 미소를 띠었고 말다는 사람 전였다. 그래서 대통령은 복상으로 만난하고 정부는 대적인으로 옮기도록 시했다.

대통령이 내려서 고금전권총리지사  
관서대신으로서 국사를 하고 있을 때 무  
총 대신사로 통갈의 행장하였다. 그는 유  
연하고 친숙하여 소련의 불참으로 국제권  
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과 유엔군의 한  
국전 개입에 유감을 보고했다.

27일 밤 10시에 주사는 그에게 「당  
민은 물론 안전·환경 방송을 할 데이고 원고  
를 바친 적도 있다. 하여 나는 복무 책임  
과도 부딪쳤다. 부끄러운데도 말야 죄였  
단다.」라고 말하면서 유엔과 미국이 우리를 도  
와 살피기로 했으나 「미군들은 잠시 고  
생이 되더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표지  
였다.

내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가도」라고 했다. 손화기부는 「오모 아리 사람  
박사의 침실 문이 關起 어니면서 「이  
봐. 이 판에 「아리가도」가 있어. 응? 이  
자가 장식이 있어 있어.」하고 화를 대는  
것이었다. 나는 민망스러서 一생 誓  
물었다. 초박사는 공산당 仁黨이나 仁  
본을 미워했다.

대전 체류 4일 동안 초박사는 안전  
을 되찾은 듯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한창 밤어서이 끊렸다는 보고가 들이오  
것은 7월 1일 자정이 未午 지나서인  
다. 새벽 3시. 누가 나를 깨웠다. 벌렁  
일어나 보니 경호관이었다. 대통령이  
다시 납북해야 할 형편이라고 했다.

이미 대통령 부처는 떠나 체비를 끌  
내고 있었다. 비는 엄수같이 쏟아졌다.  
대통령을 수행한 일행은 차운과는 달리  
목포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간 부산쪽  
으로 가지 못한 이유는 대구 지방에 계  
릴라가 출현할 것 같다는 정보 때문이  
었다. 자동차를 이용한 것도 대통령의  
행로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  
다.

목포로 가는 길은 내가 안내하기로  
하고 선두 호위차에 올랐다. 펫속을 한  
하고 선두 호위차에 올랐다. 펫속을 한



# 고단백 저칼로리 입니다.

살이 찌지 않아요

## 오양맛살

짜지 않아요

## 오양젓갈

보통소세지와 다른 이태리풍 미의

## 오양사라미

참치의 살코기로 만든

## 오양참치햄

오징어의 참맛

## 오양珍味

수산식품의 원조  
오양수산(주)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 대동로 123-6-1  
132-6500-9  
●판매부 서울 1 164-676-7 • 부산 1 242-8510

부모부인 「육신같은 놀이이니 혹은 「고급」이라는 환상한 비단을 빙어지면 푸박사도 신경을 끊고 배우자 많았던 심지어도 「한국에서 민족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우방국 가족의 친밀마저 끝살한 광도로 둑석에 인 대도를 고수하고 있었다.

푸박사는 자신의 비위를 자주 전드레는 무초 대사「미워했지 만 자신은 존경했던 미용과 사례관 뱐풀리트 장군에게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한신식사에도 뱐풀리트 장군을 자주 초대해 남소하는 것을 좋아했다. 33년 초 뱐풀리트 장군이 옹진 사령관직을 떠났을 때 달리를 그하게 하였던 푸박사였지만 막 대한 물을 주었다.

국내 정치에는 독선적인 국정으로 일관했던 푸박사였지만 외교에는 깨끗하게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푸박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라의 기반을 른튼히 하기 위해서는 외교를 이용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푸박사의 외교목표는 상대국이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문제를 제기해 놓고 유리한 위치에서 외교쟁의를 막았던 것이다.

중국과 본래를 떠나면서 점이 예전 있기 때문에 그분의 외교술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저글도는 주박사의 학원한 외교노선을 짐작한다.

55년 3월 1일 나는 사표를 내고 경대를 떠났다. 내가 푸박사장군을 존하는 사실 때문에 축청제(축청제) 한다는 사실 때문에 축청제(축청제)는 모함을 받았고, 민주당 비밀당원 누명이 죄워져 푸박사 결임 10년만 떠났던 것이다.

내가 다시 푸박사의 부름을 받고 이장으로 갔을 때도 프란체스카 여사는 른 민주당 비밀당원이라는 인식이 가지지 않았을지도 몰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푸박사를

죽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이에 대선 이후에도 이화상을 치렀다. 나는 프란체스카 여사로부터 맘껏 하루 저녁 재산을 산성과 재산관련 부탁한다는 편지를 보았다. 말하자면 재산관련의 위촉장을 같은 것이다.

나는 중대부간찰서에 연락해 서장과 경찰관이 일회한 가운데 목록을 작성했다. 푸박사가 평소 경무대에서 쓴 데문서들과 신서(信書)들이 대부분이었다.

민주당 당원이 들어서고 유품류씨가 대장장이로 취임하자 유품류씨의 비서들이 이화상을 찾았을 때는 국무회의 회장사장이나 보조리 실어갔다. 심지어는 푸박사가 소중히 모셨던 부모의 초상화

죽어 해 와 있는 미국인 뱐풀리트 대체 어려운 고압적인 자세로 대화에서도 개이어 그는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했다. 군정부에서 하자와는 불편한 관계였으나 미아미아는 각별한 관계를 지속했다. 그리고 전쟁부에서 무초 대사를 맹대하며 서도 뱐풀리트에게는 존경을 받는 수완을 발휘했다.

후미사의 외교 수완은 반공포로를 석방한 직후 레프트 장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무아의 혁정이 우리들의 협정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다. 포로 문제는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

장면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전투 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아미아 사정에 귀하와 협의한다면 오히려 귀하를 곤경에 빠트릴 것입니다. 반공포로를 그같이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미아미아는 친우(親共)의 외

교수(交誼深厚)」라고 했던 사이